

전남도, '탄소중립 실현' 10년간 30조 투입한다

녹색성장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670만톤 감축 목표
6개 부문 97개 세부사업 추진
석유·화학 주력산업 특성 불구
정부 권한 이유 별도사업 없어

전남도가 10년간 진행될 30조원 규모의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본격적인 온실가스 감축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정부관할인 산업·에너지 부분에서는 별도 사업이 없어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 등 지역 주력 산업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대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1일 전남도에 따르면 오는 2033년까지 30조4435억원의 예산을 들여 온실가스 40% 감축 및 2050년 탄소중립(Net-Zero) 실현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10개년 계획으로, 2018년 기준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670만톤(40%)을 감축하겠다는 목표다. 전남도는 목표 달성을 위해 지역 여건·특성을 반영한 부문별·연도별 감축 목표와 방법, 온실가스 감축대책 등 선제적 기후위기 대응 기반 구축 전략을 마련하고, 부문별로 △수송 △건물 △농축수산 △환경관리 △탄소·흡수 △산업 등 6개 부문, 97개 세부사업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추진한다.

부문별로 수송 부문의 경우 화석연료 사용 중심의 수송체계 개편을 통해 친환경 교통수단 보급 확대 및 내연기관 자동

차 수요관리 등 19개 사업에서 기존 470만톤의 온실가스를 284만톤으로 39.7% 감축한다는 목표다. 또 건물 부문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그린리모델링 사업, 신규 건축물 제로에너지빌딩 전환 등 21개 사업에서 665만톤의 배출량을 555만톤으로 16.5% 감축한다.

농축수산 부문은 농수산업의 저탄소 구조 전환, 탄소 저장 및 자원순환 촉진, 에너지 효율 개선 및 재생에너지 생산 등 18개 사업에서 26.8%(381만톤→278만톤)를, 환경관리 부문은 폐자원 바이오가스 등 미활용 에너지 발굴 및 이용 확대, 물 수요관리 강화, 자원순환 체계 구축 및 흡수원 확충 등 20개 사업에서 51.0%(134만톤→66만톤)를 감축한다.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블루카본' 등을 활용한 흡수 부문에서는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및 습지보전, 산림생태계 건강성 유지,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 블루카본 인증 및 바다정원화 사업 등을 추진해 신규 흡수량을 50만톤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산업부문의 경우 비관리 영역으로 철강, 석유·화학 등 고탄소 업종의 저탄소 전환 촉진 및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탄소중립 대응역량 강화 지원이라는 원론적인 대책 마련에 그쳐 아쉬움을 낳고 있다.

전남의 경우 석유·화학, 철강, 조선산업 등 주력산업의 영향으로 전국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두 번째로 높은 지역이지만, 산업·에너지 부문의 탄소중립 관할이 정부 관할이라는 이유로 지자체 차원의 별도 사업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박형대 전남도 의원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에 있어서 산업·에너지 부문이 중앙정부의 관할 범위라는 것이지, 지자체에서 대책을 전혀 세울 수 없는 것이 아니다"며 "전남도에서는 나름대로 열심히 탄소중립 정책을 펼치고 있는데, 여수산업단지만 해도 예나 지금이나 똑같이 엄청난 양의 온실가스가 배출되고 있다. 지자체 차원에서도 산업 부문에 대

한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탄소중립 정책의 경우 기본계획 수립도 중요하지만, 이미 시행되고 있는 지역의 모든 사업에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과정이 투입되기 위해서는 별도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박 의원은 "탄소중립의 경우 여기서부

터 여기까지 범위를 정해놓고 실행하는 것이 아니라 도정 전반에 기본적으로 깔려있어야 하는 가치이고, 그래야만 실질적인 효과도 커질 것"이라면서 "하지만 지금처럼 하나의 실과가 담당하면서 다른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까지 적용되기란 쉽지 않다. 탄소중립만을 위한 총괄부서가 필요한 상황이다"고 강조했다.

곽지혜 기자 jihye.kwak@jnilbo.com



병원 실내마스크 착용 자율화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시행 첫날인 1일 광주 북구 중흥동의 한 2차 병원에서 북구보건소 직원이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정부는 1일부터 코로나 19 위기단계를 2번째로 높은 경계에서 가장 낮은 관심으로 내리기로 했다.

김양배 기자

광주시, 새단장 어린이교통공원 운영 재개

별관 신축... 최신 교육시설 첨단 실감 교육콘텐츠 보완

광주시는 어린이교통공원 별관이 완공되고 콘텐츠 교육설비 교체가 완료돼 2일부터 유치원생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체험교육 운영을 재개한다고 1일 밝혔다.

지난 1998년 건립된 광주어린이교통공원은 각종 교통시설과 실내 영상교육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실외 미니열차, 자전거·킥보드 운전 등 체험시설을 갖춰 해마다 2만여명의 유치원생과 초등학생들이 방문하는 등 인기 체험시설이다.

하지만 시설 노후화와 현재 교통문화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교육콘텐츠로 인해 재정비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광주시는 2023년부터 별관건물 신축(510㎡), 기존 건물 개보수(1688㎡), 최신 교육과정에 맞는 첨단실감 교육콘텐츠를 보완했다.

새단장한 어린이교통공원에서는 교통 박물관 영상교육 시청, 버스에 안전벨트

를 착용하고 급정거 시물레이션을 체험하는 '안전벨트 착용교육', 키보드에서 영상으로 퀴즈를 풀이하는 '키보드 안전체험', 스마트폰을 보며 가상의 건설현장을 지나갈 때 위험성을 인식하는 '스몸비 보행체험', '올바른 횡단보도 건기 체험' 등 새로운 교육콘텐츠를 선보인다.

또 이륜차·킥보드 안전체험, 횡단보도·육교 건너기, 미니열차 탑승 등 실외교육도 이뤄진다.

김석용 교통국장은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어린이교통공원이 가상현실과 영상

시물레이션을 활용한 최신 교육시설로 새롭게 단장했다"며 "교통안전 교육을 통해 교통사고 경각심과 교통법규 준수의를 높일 수 있도록 어린이교통공원 운영에 내실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어린이교통공원은 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한다. 단체교육은 어린이교통공원 누리집(www.gctp.kr)에서 사전 예약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광주어린이교통공원(062-972-0054)으로 문의하면 된다.

최권범 기자



그린궁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